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 플러스

영은『동행』창간 40주년 - 김창원기자

신앙의 유산

신앙과 헌신의 '열정 관' - 이정규 은퇴장로

올백데이

열정으로 잇는 사귄 - 김재원기자 외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www.youngeun.or.kr

916004241840427

“아낌없이 주는 사랑”

얼굴에는 나무옹이보다 짙은 검버섯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은 나무껍질보다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평생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고목나무를 닮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16)

글·사진 | 서현이 집사



올백데이 "경복궁 이야기"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5월 3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옥
 윤정림 이숙경A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A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리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 아낌없이 주는 사랑 서현이 집사
- 04 **생명의 말씀** | 열정을 잊아간 일상의 유혹, 적당한 신앙 이승구 목사
-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삶으로 흐르는 유산, 사랑으로 심는 소명 김정후 집사
- 10 **동행플러스** | 영은 『동행』 창간40주년을 맞이하여 김창원 안수집사
- 13 **구역식탁** | 교회도 직분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 정봉화 집사
- 15 **신앙의 유산** | 신앙과 헌신의 '열정 끈' 이정규 은퇴장로
- 18 **소식&나눔** | 시각과 청각으로 만난 복음의 신비 신하평 안수집사
 | 이웃과 나누는 부활의 기쁨, '부활절 커피 나눔' 신요한 목사
 | 예수 부활했으니! 꿈지람부 양평파출소 방문 이정미 집사
 | 교회창립 66주년 기념주일 & 영은 올백데이 김재원 외 15명
 | 화요직장인예배 2주년을 맞이하며 이정미 권사
 | 권찰회 야외예배 김명희 권사
- 30 **청년마당** |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주 사셨다!" 김하민 청년
- 31 **선교현장 속으로** | 태국 라농 2월 소식 김경수·서경란 선교사
- 33 **슬기로운 교회생활** | 주차를 통한 사랑과 배려 한진구 목사
- 34 **생활노트** | 마음 돌봄: 나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나영 집사
- 36 **뒷표지** | 2026 부흥사경회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열정을 앗아간 일상의 유혹, 적당한 신앙 [마25:3-4]



이승구 담임목사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너무 앞서가면 시기를 받고, 너무 뒤처지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자기 뭇은 챙기는 ‘적당함’은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자 세련된 처세술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 안전한 생존 전략이 우리의 신앙 영역으로 스며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뜨겁게 믿자니 일상이 피곤해질 것 같고, 아예 안 믿자니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신앙 영역에서도 ‘적당한 선’을 긋습니다. 바쁘면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 어중간한 태도를 유지하며 헌신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로 따르지도 않는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 칸막이 신앙

이처럼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칸막이 신앙’ 때문입니다. 칸막이 신앙이란 삶과 신앙을 칸막이로 나눈 것입니다. 신앙을 ‘주일’이라는 시간의 칸막이 안에,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의 칸막이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칸막이 밖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설교 영상보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마 25:3)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 하러 갔습니다. ‘등’을 가졌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이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는 순종이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내적 생명력입니다. 기름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별됩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등’이라는 신앙의 형식에만 만족하는 영적 칸막이 안에 갇혀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간의 칸막이’와 ‘공간의 칸막이’ 라는 ‘등’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칸막이 밖의 삶에서는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도 없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도 없고, 순종을 위한 몸부림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꺼져 버립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관계의 갈등이 터질 때 칸막이 신앙은 금세 빛을 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칸막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성도’라는 외투를 벗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어둠을 밝힐 ‘작은 등불’로 파송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종교적 활동’이라는 좁은 칸막이에 가두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고 흐르는 ‘생활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의 칸막이를 허문다는 것은 교회에서 쓰는 ‘거룩한 언어’를 일상의 ‘실천적 언어’

로 번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의 고백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별개의 칸막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어 정작 불을 켜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의 칸막이를 허물고,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등만 들고 있지 말고 기름을 늘 준비함으로써 어떤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럴 때 열정을 갖아간 일상의 유혹인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 하향 평준화 신앙

미련한 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절반이나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친구도 기름이 없고 저 친구도 졸고 있습니다. 서로의 빈 그릇을 확인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 25:4)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시선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정을 앗아가는 유혹은 우리의 고개를 자주 옆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옆 사람의 평균’이 되는 순간,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시작됩니다. 기준점이 낮아지면, 그 낮은 기준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스스로 ‘훌륭한 신앙인’ 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적당함’이라는 늪에 다 같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배울 모델’을 찾기보다 ‘내 나태함을 정당화해 줄 모델’을 찾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타인의 부족함은 경고가 아니라, 안심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토대를 둔 신앙은 언제나 ‘적당히 해도 된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향 평준화의 신앙’ 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 바꾸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델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주변의 인물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옆 사람만큼만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바로 기름을 채우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과 완전한 순종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적당히’ 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정을 앗아간 일상의 유혹인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6년의 역사라는 ‘등’만 붙들고 있다면, 정작 그 등 안에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 안에서만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안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을 앗아간 일상의 유혹에 넘어가 적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6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흐르는 유산, 사랑으로 심는 소명



김정후 집사
(초등부 교사)

신앙은 때로 선택이라기보다, 한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산처럼 이어진다. 나에게 신앙은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목회자이자 신학대 교수로 헌신하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온 시간은 내 삶의 뿌리가 되었다. 주일이면 어디에 있던 교회를 찾는 것이 당연했고, 여행지에서도 예배드릴 곳을 먼저 찾던 기억은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다. 그렇게 이어진 신앙은 부모 세대를 거쳐 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어 어 느꼈 5대를 잇는 믿음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앙은 너무나 익숙한 삶의 일부였지만, 교사로서의 삶은 또 다른 배움을 요구했다. 본래 급한 성미 탓에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하려 했던 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그 속도를 멈추어야만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가 필요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돌아보니, 오히

려 나는 아이들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말씀의 본질’이다. 즐거운 활동과 따뜻한 관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흥미는 사라지고 관계 역시 흔들리기 마련이다. 결국 아이들을 붙드는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삶 속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를 하며 경험했다.

물론 교사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온다. 순수한 봉사의 자리임에도 회의감이 스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힘은 결국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기에 교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던 아이들이 성장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마주할 때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간절한 바람이 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삶의 굴곡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기를, 평생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더 큰 소망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

계 하나님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마음의 흐름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19살 무렵 할아버지로부터 목회의 길을 권유받았을 때 나는 그 길을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목회자의 삶에 따르는 무게와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내와의 만남과 하나님의 응답

을 통해 그 부르심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고, 나는 다시 그 길 앞에 서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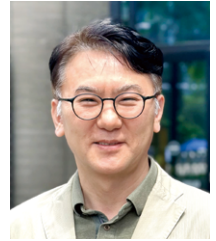
“저 아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 함께 있으면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그 자체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존재로 자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다. 결국 신앙은 교회 담장을 넘어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때 또 다른 누군가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 위에 서서 나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 아이들의 작은 믿음이 꺼지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들을 품으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한다.



김정후 집사와 초등부 어린이들

영은 『동행』 창간40주년을 맞이하여



김창원 안수집사
(동행팀 차장)

1986년 4월 27일, 영은교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하여 첫발을 내디딘 『동행』이 어느덧 불혹을 맞이했다. 타블로이드판 4면의 소박한 『영은소식』으로 시작해 현행 A5 규격 모던 잡지에 이르기까지 『동행』은 어두운 사회의 등불이 되기를 꿈꾸었던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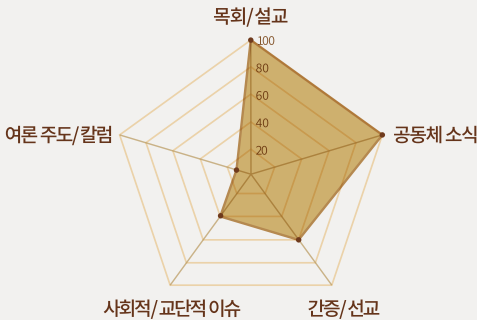
40년의 세월 동안 『동행』은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엮어내는 소통

의 장이었다. 80년대 민주화의 열기 속에 교회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길 꿈꾸던 젊은이들의 비전과 허남기 원로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일치하여 ‘전도와 교회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동행』은 이제 신앙공동체의 결속과 영적 성장을 돕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성도들이 매월 나누는 수많은 기사와 삶의 간증은 우리 속에 잠자던 열정을 깨우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목도하게 하며 살아있는 기적으로 다가온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진화: 1986년-2026년



전도지에서 시작해 교회 역사의 핵심 기록물로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유산



내부 소식 위주의 편중

현재 교회 내의 소식(교회 소식, 공동체 이야기)과 목회자의 설교 등 정보 위주의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 (핵심 집중 영역)

외적 이슈의 부재

교단, 사회적, 목회적 이슈 등 교회 외적인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

여론 주도 기능 축소

여론 주도적인 내용과 민감한 사회적 이슈 다루기를 자제하고 있음

균형 잡힌 시각과 사회적 등불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 이슈 및 심층 기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편집 방향 재고

『동행』의 변화는 교회 조직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창간 초기 선교분과위원회 소속에서 현재 ‘예배분과위원회 산하 영상홍보부 동행팀’으로 변경된 것은, 『동행』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예배의 연장선으로 그 ‘역할과 관점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의 콘텐츠를 진단해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도 눈에 띈다.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내부 소식 등 핵심 영역에는 깊이 있게 집중하여 큰 은혜를 나누고 있으나, 교단 및 사회적 이슈 등 외적 콘텐츠는 현저히 부족한 ‘내부 소식 위주의 편중’ 현상이 보인다. 영적 고립화를 탈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도 시선을 향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적 이슈를 포용하고, 여론 주도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웹진 『동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인쇄물(Print)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실물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월 1회 발행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기사의 시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웹진(Digital)은 즉각적인 업로드로 적시성을 확보하고, 원격지 교인에게도 탁월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월간지의 깊이와 웹진의 민첩성을 결합한 혼합형 운영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체계적인 기사 검토와 강력한 정보 보안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신 편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반 시설 고도화, 지속적인 웹사이트 관리, 기록 보존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프라 고도화

System & Software

- 편집 프로그램의 전면 업그레이드
- 웹진과 인쇄물의 퀄리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신 편집 기능 및 영상 연계 복합 기능 확보



전문 역량 강화

Human Resources

- 지속적인 웹사이트 관리 및 기록물 보존을 전담할 전문 인력 확보
- 보안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기사 검증 (크로스체크)을 위한 시스템 구축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사역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진다. 『동행』이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의 40년, 10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속 가능한 열정’이 필요하다.

지난 40년간 매월 첫 주 『동행』이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의 땀방울이 모여 영은교회의 역사가 촘촘히 기록되어 왔다. 동행팀의 열정과 기도로 매월 출간되었지만, 때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중단할 뻔한 위기도 있었다. 1986년에 출발한 『동행』은 사회적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안정적인 사역 환경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더 넓은 세상과 『동행』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바로 접속하세요

월간 『동행』과 교회의 더 많은 소식을 홈페이지와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영은 『동행』의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26년 현재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발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동행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또한 역사가 될 것이다.

동행을 만드는 사람들

묵묵히 헌신으로 빛의 궤적을 이어가는
2026년의 동역자들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욱 윤정림 이숙경A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A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김경미

기록은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공동체의 역사가 됩니다.

영은교회 창립 66주년 및 동행 창간 40주년을 감사하며.

교회도 직분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



정봉화 집사
(501구역)

20대 | 신앙의 뿌리를 내리다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정봉화 집사는 어렸을 때 잠깐씩 시골 교회에 다녔다. 20대 중반이 돼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집사님은 23살 무렵 서울 언니네 집으로 이사하며 언니가 다니던 교회에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 교회가 이단으로 변하면서 교단에서 제명된 걸 알았다. 그때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려고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다.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도 드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집사님은 이단 교회에 계속 다니는 언니를 위해 7년간 기도했다. 마침내 언니 가정이 이단에서 빠져나와 장로교회로 옮겼다.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결혼 후 남편(장성일 집사)도 순복음교회에 6~7개월을 같이 다녔다. 그러나 남편은 순복음교회에 다니길 꺼렸다. 어쩔 수 없이 정 집사님은 8년간 다니던 순복음교회를 떠나 남편과 함께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에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친척이 다니던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자신의 어머니도 전도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 문을 닫자, 어머니는 순복음교회로 간 것이다.

30대 | 고군분투했던 신앙생활

감리교회에 다닐 때는 뜻밖에도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집사님 자녀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전도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집사님은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간힘을 쓰다가 상처까지 받았다. 게다가 그 무렵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교회에 몇 년을 다닌 상태에서 등록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중에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갔고, 집사님은 여전도회 회장을 맡게 되었으며 초등부 교사로도

봉사했다. 이후 맡은 직분 때문에 집사님은 주일마다 먼저 교회로 나섰고 집에 혼자 남은 남편은 점차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불안해진 집사님은 친정집을 찾듯 순복음교회에 다시 나갔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이는 순복음교회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즈음 영은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에서 컵라면을 나눠주곤 했다. 집사님의 아들이 학교 친구들한테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친구들과 그 컵라면을 꼭 함께 먹고 싶다’라며 자기를 영은교회에 보내 달라고 계속 졸라댔다. 결국 ‘컵라면의 힘’으로 온 가족이 영은교회 교인이 되었다.

40대 | 컵라면과 아이들 덕에 맺은 결실

먼저 딸 윤서가 동생(원혁)을 데리고 영은교회에 갔다. 이후 집사님 부부도 자연스럽게 영은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서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전 교회에서의 부담이 너무 컸던 터라 큰 결심을 해야만 했다. “영은교회를 다니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남편과 함께 등록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등록하였고 남편도 영은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다. 남편이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닌 이유로 하나님께서 영은교회로 인도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

각이 들어서 ‘중보기도훈련 1기생’이 되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 수료식에서 선서하는 날 아침에 사건이 발생했다. 기도를 평생 해야 한다는 무게감에 불만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현관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잠금장치 교체 전에 ‘기도를 순종하며 감당하겠다’ 라고 기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고, 교회 집사님이 차를 태워 주신 덕에 늦을 뻔했던 수료식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일 후에 집사님은 전도부 봉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 전도폭발(목요반) 훈련자로서 봉사하면서 화요노방전도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501구역의 구역장을 맡으며 10년간 봉사했던 교사직을 내려놓았다. 501구역은 타지역 권사님이 반장과 구역장을 겸하고 계시던 곳이었다. 그 구역을 맡았던 권사님이 작년에 은퇴해서 정 집사님은 거주지가 아닌 501구역으로 파견된 것이다. 구역 상황을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신임 반장과 501구역 식구들과 화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집사님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신앙과 헌신의 ‘열정 끈’

이정규 은퇴장로는 1947년에 전라북도 전주시 변두리 농촌에서 부친 이병구 집사와 모친 이순봉 권사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던 부모님은 뒤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가족 모두를 전도한 것은 이정규 장로다.



이정규 은퇴장로

열정의 신앙인

이정규 장로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큰할아버지의 손자들이던 형들을 따라 교회(전주 호성교회)에 다녔다. 교회가 조금 멀었지만, 형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이 좋아서 따라 다녔다. 이후 옆 동네에 개척교회(전주 신성교회)가 생기면서 큰할아버지 집안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 장로님도 형들을 따라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장로님은 기독교 학교인 전주 신흥중학교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중등부 학생회 활동 등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다.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장로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은 평생 변함이 없었다. 장로님의 ‘열정’으로 가족 모두를 전도할 수 있었다.

장로님은 불교와 무속 신앙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장로님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절에

다녔고, 장로님을 “무당에게 팔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집에 무속인이 들락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장로님의 ‘전도 열정’으로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신앙과 헌신의 ‘열정 끈’인 장로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영은교회에 등록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로님은 다니던 교회에서 김명순 권사를 만나 1974년에 결혼했다. 둘이 찬양대에서 봉사하다가 평생 반려자가 된 것이다. 1976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서울에 올라왔다. 은행에서 건축직으로 건물 시설관리와 건축, 감독으로 은퇴할 때까지 21년간 재직했다. 서울에 와서는 서부 이촌동교회에 다녔다. 1983년에 당산동 유원제일 1차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몇 교회를 다니다가 영은교회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1년 가까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1985년 3월, 제 4대 이용남 담임목사



이정규 장로와 김명순 권사

님이 사임 후 교회를 떠나면서 후보에 장로님을 찬양대에 임명했다. 그때부터 부부가 같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다. 이후 장로님은 찬양대장으로도 여러 해 봉사했다. 2017년 6월 11일 주일 오후예배 때 찬양대 3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장로님은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 갈렘남성합창단에서도 단원과 단장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찬양은 장로님 평생에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교회 희년기념 비전센터 건축에 참여

장로님은 1998년에 안수집사, 2010년에 장로가 되어 복지부, 홍보부, 재정부, 상례부, 차량관리부 등 여러 부서에서 헌신, 봉사했다. 장로님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 일 중 하나는 교회 비전센터 건축이다. 2010년, 교회는 제 6대 고일호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희년 기념 비전센터’ 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로님은 건축위원회 총무로 임명되어 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건축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교회의 재정 형편상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발주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비전센터 건축은 진행됐으나, 도중에 시공사의 부도로 2016년 6월에 건축위원회회를 재구성하게 됐다. 그때 장로님이 건축위원회 총무로 재임명되었고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여 건축을 재개했다. 그 무렵 건축위원장이 이진호 장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장



교회 희년기념 비전센터 입당 커팅식(2017. 9. 10.) (오른쪽 6번째, 이정규 장로)

로님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중단없이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공사를 추진했다. 마침내 2017년 9월 10일에 ‘희년 기념 비전센터’ 입당예배를 드리게 됐다.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다. 건축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건축할 수 있을까’를 위해 늘 기도했다. 고일호 목사님과 교인들의 합심 기도로 비전센터 건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모든 일에 감사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아들(종석)과 며느리(안현정)가 장로님 부부처럼 나란히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장로님은 신앙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손녀(해인, 해원)와 손자(승호)도 청년부와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딸 미현은 청년일 때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다 결혼한 후 스위스에서 살다가 귀국해 현재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 생활하며 봉사하고 있다.

장로님에게 바람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가 항상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다. 장로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화평’에 관한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즐겨 부르는 찬송은 408장이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툼이 없고, 마음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



이정규 장로 가족

“내가 ‘나’ 된 것을 회상해 보니, 뭐하나 똑똑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과분하게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로 택하여 주신 것, 서울에 직장을 주신 것, 정년 후에도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것, 평안한 가정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은혜’라 말하며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히 일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수 주일 한 것,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저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다짐의 말이다.



신하평 안수집사

시각과 청각으로 만난 복음의 신비:

박지훈의 <예수>, 그 위대한 부활의 증언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다. 성전에 울려 퍼진 120명의 화음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영적 드라마였다. 이번 부활절에 영은실내악단과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박지훈 작곡가의 칸타타 <예수>는 영상과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져 회중들을 복음의 핵심 사건 속으로 깊이 인도했다.

부활절 칸타타 <예수>에 이한주 집사가 지휘를, 염정은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배미영 선생이 오르간 반주를 맡았으며, 영은실내악단 13명이 함께 했다.

칸타타 <예수>의 특징은 음악과 영상의 조화였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군중들의 환호가 영상으로 펼쳐졌고, 찬양대의 합창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기쁨을 더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곧 엄숙해졌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내악단의 애절한 선율은 깊은 울림을 주

었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는 절제된 화음이 주님의 고통을 전하며 회중석을 숨 죽게 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돌무덤 장면이었다. 적막을 깨고 무덤문이 열리며 빛이 쏟아졌고, 동시에 울려 퍼진 부활의 선포는 전율 그 자체였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를 찬양하라!”

이어지는 연주는 부활의 기쁨을 더욱 고조시켰다. 금관과 현악 그리고 타악이 어우러진 울림은 찬양의 찬양대가 함께하는 듯한 감동을 전했다. 120명의 연합찬양대와 실내악단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수개월간 묵상하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었다.

이번 칸타타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한 귀한 시간이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증거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웃과 나누는 부활의 기쁨, '부활절 커피 나눔'



신요한 목사

사랑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영은교회는 그 위대한 기쁨을 지역 사회와 함께 누리하고자 인근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활주일 주간인 4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이어졌다. 가젤커피(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커피사피엔스(양평자이비즈타워), 블루삭커피(양평역), 메가커피(월드메르디앙) 등 지역 카페 네 곳과 협조하여, 매일 한 곳씩 순회하며 교회 주변의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약 500잔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이 뜻깊은 행사는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올해도 많은 직장인과 시민들이 발걸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받아 가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각 카페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교회와 지역

상권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아름다운 상생의 장이 되었다.

커피 나눔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변화시키는 동시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기발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은교회는 지역 사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꾸준히 전할 계획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다운 복음의 색으로 입혀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소망한다.



이경미 집사
(꿈자람부 교사)

예수 부활했으니! -꿈자람부 양평파출소 방문-

4월 5일 부활주일에 꿈자람부는 ‘십자가를 찾아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꿈자람부 어린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눴다.

꿈자람부는 2022년부터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양평파출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올백데이 전교인 체육대회’로 양평파출소를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부활주일에 파출소를 찾아가겠다고 하니 꿈자람부 어린이들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양평파출소 경찰들에게 줄 부활절 달걀을 포장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쁜 소식 전합니다!” 등 인사를 소리 내어 연습도 했다. 김찬영 전도사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라는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친 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어린이들이 함께 양평파출소로 출발했다.

양평파출소에 도착하자 처음에는 제복 입은 경찰들을 보고 조금 긴장하던 미취학 어린이들이 경찰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모습에 긴장을 풀고 밝게 웃었다. 경찰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함께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다. 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외치자, 파출소 안은 곧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다.

부활주일에 꿈자람부는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달걀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선물했다. 부활절 달걀을 경찰 모두에게 전하며 부활의 참된 의미인 사랑과 나눔을 느낄 수 있었다.

“경찰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습니다. 동생들과 친구들, 언니, 오빠, 선생님들까지 함께 찬양하니 힘이 나고 참 즐거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감사해요!”(이가은)



교회창립교인(앞줄)과 함께



교회창립 66주년 기념 케이크



창립기념주일예배

교회창립 66주년 기념주일 & 영은 올백데이

“열정으로 잇는 사림, 다시 연결되는 우리”

4월 19일 주일,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함께하는 ‘올백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대와 부서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총 681명의 성도가 함께하며 교역자부터 교회학교,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어우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교회창립 교인인 김동호 원로장로와 박복순 은퇴권사, 한영기 은퇴권사가 교회창립 66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 드렸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오전에는 1~3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2~3부 예배에서는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더해졌다. 오후에 진행된 ‘올백데이’에서는 15개 클래스가 운영되어 성도들은 각자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원하는 클래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러닝, 산책, 인왕산 산행 등 야외활동형 클래스에서

는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고, 경북공정동 탐방과 탁구로 이어진 도삼교제형 활동에서는 장소를 넘어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노래교실, 고전음악, 북클럽으로 구성된 문화감성형 클래스에서는 웃음과 공감이 이어졌고, 꽃꽂이, 케이크 만들기, 삼푸바 제작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며 마음을 나누었다. 또한 강점코칭, 방구석 종교개혁 여행, 커피드립으로 구성된 배움나눔형 클래스에서는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깊이 있는 교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각 클래스 리더와 청년들 그리고 실행위원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 덕분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올백데이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소감을 통해 이날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와 은혜의 고백을 들어본다.

글·정리 | 김재원 기자



안양천, 한강변 러닝

함께 달린 올백데이

영은교회 올백데이에 40개월 아이와 함께할 프로그램을 찾다가 2.5km 러닝에 참여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며 완주했다. 등록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인사를 나눌 분들이 생겨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이도 매우 즐거워하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했고, 행사를 위해 애써준 분들께 감사한다.

♡ 김원섭, 김민경, 김한울 가족

남산둘레길, 믿음의 동행

올백데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남산둘레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 은혜를 깊이 느꼈다.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과 배려가 커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했다.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감사와 믿음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이기승, 박아현, 이지원 가족



남산둘레길 산책



인왕산 산행

인왕산 산행, 교제와 나눔의 시간

교회창립 66주년 기념 주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걸음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인왕산에서의 교제와 식탁에서의 나눔은 우리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했다. 모두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교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힘을 얻은 은혜로운 날이었다.

♡ 이종원 안수집사



경복궁 이야기

올백데이 "경복궁 이야기"

화창한 날씨에 공기까지 맑은 올백데이에 ‘교회 밖에서 이렇게 즐거운 일이야?’ 설렘과 부푼 마음으로 30여 명의 아이, 어른 모두가 참여한 ‘경복궁 이야기’를 유머 넘치는 전문 역사가 유종현 안수집사를 통해 듣는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경복궁 건축물뿐 아닌, 그 속에 얹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이리도 아름다움이 서려 있음에 감격했다.

♡ 이은경 권사

정동의 길 위에서 만난 역사와 우리의 시간

정동 산책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참 많다. 짝꿍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화학당과 정동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간식을 먹으며 선교사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역사 여행을 온 기분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두 분의 목사님이 이곳 출신이라는 것과 유관순 열사님이 이곳에서 공부하셨다는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는다.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박시은 (중등부 1학년)



정동 근현대사 역사탐방



탁구

탁구 클래스로 하나가 된 교제와 은혜의 시간

올백데이 탁구 클래스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함께 땀 흘리며 응원하는 가운데 서먹함은 사라지고, 깊은 교제와 화합을 이루었다. 작은 탁구공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다. 헌신한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은교회가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 조영호B 성도



노래교실

은혜와 기쁨이 넘친 노래교실

올백데이 원데이 클래스를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노래교실을 신청했다. 전체 75명의 참석자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청년 9명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명옥 권사의 인도로 부모님 애창곡을 부를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최신가요를 부를 때는 청년들과 함께 손뼉 치고 춤추며 큰 기쁨을 누렸다. 노래교실에 오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고, 수고한 강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유순자B 권사

음악으로 읽는 이야기, 바흐와 헨델

서양 음악의 바로크 시대를 이끈 1685년생 동갑내기 바흐와 헨델의 작품을 이렇게 친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통해 성경 속 인물의 대사와 감정이 음표와 악보로 표현되는 가사그리기(word painting)를 접하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안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귀한 경험을 했다.

♡ 연상훈 안수집사



바흐와 헨델의 조우



제철행복 북클럽

함께 읽고 함께 나는 행복

4월 19일 올백데이를 맞아 북클럽 모임에 참여했다. 이정희 집사님을 포함한 10명의 성도가 『제철행복』을 함께 읽고, 마음에 남은 문장과 각자의 삶 속 행복을 나눴다. ‘제철 행복 달력’을 만들며 올해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함께 다짐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낀 감사한 시간이었다.

♡ 진윤규 목사



꽃놀이

꽃놀이처럼 피어난 은혜의 시간

꽃놀이 클래스에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꽃을 하나하나 만지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다시 생각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성도님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공동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린다.

♡ 신재희 사모, 정하유

달콤한 교제의 시간, 아이스박스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권사님과 스태프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준비 덕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정성껏 준비한 생크림을 보며 섬김의 마음을 느껴 감사했고, 케이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이어졌다. 달콤한 케이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교제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한수민 전도사



아이스박스 케이크 만들기



삼푸바 만들기

갓(GOD)백한 삼푸바 만들기

청년부 목원들과 함께한 삼푸바 만들기 클래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갓백한' 시간이었다. 천연 재료로 삼푸바를 만들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됨을 느꼈다. 청년들, 집사님들, 전도사님이 함께 웃고 도우며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 갔다. 공동체의 다양함과 따뜻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 김현기(청년부)



강점코칭

강점코칭으로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

강점코칭을 통해 어렵듯이 알던 저의 강점이 선명해지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강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연령과 직분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공감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귀한 나눔을 이끄신 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미선(청년부)

종교개혁의 불꽃, 우리 삶의 현장으로

박대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이번 강좌는 김명희 권사님의 강의를 통해 50여 명의 성도가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간 시간이었다. 500년 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정신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 정신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길 기도한다.

♡이도수 장로



방구석 종교개혁 여행



커피드립백

예수님 향기가 나는 커피드립백 만들기

올백데이 커피드립백 만들기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팀원들과 협력해 드립백을 만들고, 먼저 드립백을 완성한 팀은 다른 팀을 응원하며 함께 웃었다. 체험 전, 커피가 교제의 도구로 쓰인 역사에 대한 짧은 강의를 들으며 의미를 더했다. 또한 준비된 다양한 게임 덕분에 모두가 더욱 몰입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병남(청년부)

화요직장인예배 2주년을 맞이하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양제”



이정미 권사

화요직장인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주년이 되었다. 이제는 매주 100여 명의 예배자가 꾸준히 모여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화요직장인예배의 예배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교제는 직장인 예배자를 ‘화요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묶었다.

지난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40여 명의 예배자가 함께 화요직장인 예배 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말씀(이승구 담임목사)과 감사 영상, 특별 찬양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간식까지 더해져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부활절을 맞아 전도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직장인 예배자들이 3주 전부터 사랑하는 지인들을 떠올리며 기도로 준비했고, 많은 분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렸다.

2주년 예배 시, 설문을 통해 예배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많은 분이 화요직장인예배를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양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평일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는 곳’, ‘개인적인 일정까지 조정할 만큼 소중한 곳’, ‘세상 속 숨이 되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예배가 그리워서’,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이 좋아서’라는 응답을 통해,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뭉클했다.

화요직장인예배는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다. 이 자리가 더 많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안식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의 문턱을 넘어온 이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화요직장인예배가 직장 선교와 지역 전도의 귀한 통로로 쓰이기를 바라며, 영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계속 서있기를 기도한다.





권찰회 야외예배 수원 기독교 역사 순례



김명희 권사(3교구)

4월 24일 금요일, 권찰회 야외예배가 ‘수원 기독교 역사 순례’로 진행됐다. 6개 교구 지역장, 부지역장, 반장, 구역장, 권찰, 교회 직원 등 총 167명이 함께 했다. 맑은 날씨에 가볍게 차려입은 참석자들은 설렘과 기대로 화기애애했다.

오전 10시에 도착한 곳은 수원동신교회다. 이 교회는 1900년에 한국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1863-1921)가 세운 감리교회다. 노리마츠 목사는 가족과 수원에 살면서 철저히 한국인처럼 생활했고, 부인(사토오)과 함께 전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힘든 환경으로 부인이 폐렴에 걸려 먼저 숨을 거뒀고, 노리마츠 목사도 폐렴으로 1921년에 주님 곁으로 갔다. 일제 강점기임에도

동네 사람들이 노리마츠 목사를 ‘성자’로 부를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감동적이었다. 부부의 유해는 수원 광고산에 묻혔으나 묘지가 개발되면서 노리마츠 목사의 기념비만 수원동신교회에서 보존하고 있다. 그의 피로 세운 수원동신교회 앞에서 우리는 노리마츠 목사의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마음 깊이 새겼다.

수원동신교회에서 버스로 5분 만에 도착한 곳은 수원종로교회(감리교)다. 이 교회는 수원 지역의 첫 개신교회로 1866년 병인박해 때 19명이 미루나무에 매달려 순교했던 터 위에 세워졌다. 1894년에 교회가 시작됐으나, 1907년에 현재의 복수동 자리에 교회를 건축했다. 13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 순교



수원종로교회 송윤순 장로(앞줄 중앙)와 영은교회 성도들

자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수원종로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수원의 오목천교회 외에 11개 교회가 수원종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필리핀에 4개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종로교회 강성을 담임목사의 배려로 영은의 성도들은 수원종로교회의 역사를 배우며,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었다.

수원종로교회 본당에서 드린 예배에서 영은교회 이승구 담임목사는 “하나님께 맡기기”(왕상 11:4)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노년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믿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우를 범했다. 이승구 목사는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맡기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면했다.

우리는 수원화성 순교성지로 이동해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순교성지를 둘러봤다. 병인박해(1866-1873) 때 순교한 80명과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의 터를 따라 순례하며 기독교가 어떻게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는지 묵상했다. 순례를 마치고 조별로 화성행궁 행리단길을 따라 걸으며 카페에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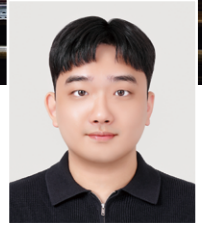
권찰회 야외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둘러보며 현재 우리가 쏟아야 할 ‘사역의 열정’이 무엇인지 묵상했다. 야외예배를 위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권찰회 임원들(박수기, 이영희, 최경숙, 정정순, 이재화, 조지영 권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수원종로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중앙: 수원종로교회 강성을 목사와 영은교회 이승구 목사)



부활절 칸타타를 마치고



김하민 (청년2부)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주 사셨다!”

4월 5일 주일 13시 30분에 시작된 청년부 예배에서 부활절 칸타타 “주 사셨다!”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 찬양대 장현수 지휘자와 최주는 반주자 그리고 청년부 교사 2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고난, 부활까지의 과정을 찬양으로 그려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매 주일 예배와 양육모임 후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온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연습하였다. 죽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은 청년들이 가사를 묵상하며 신실하게 칸타타에 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특히 이번 칸타타는 곡과 곡을 이어주는 해설(내레이션)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역할을 올해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 청년들이 맡았다. 새내기들

이 청년으로서 맞는 첫 부활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한 ‘호산나’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담아낸 ‘최후의 만찬’, 빌라도와 성난 회중 앞에 섰던 주님을 ‘체포하고 재판’한 것, 마침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 사셨다!’ 등 총 8곡의 칸타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청년부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청년들과 가까이 도움을 보태 준 분들이 있어 목소리를 높인 그 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은혜로울 수 있었다. 이번 칸타타가 영은 청년부에 그리스도 부활의 감격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태국 라농 2월 소식

김경수·서경란 선교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국 남부 라농 지역의 사역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농 까퍼교회

1. 라농 까퍼교회

최근 라농 까퍼교회는 현지 사역자인 ‘아잔 뵘’에게 사역을 위임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전도처의 단계를 넘어 자립교회로 서기 위한 예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도심으로 나간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 복음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전도와 선교 - 오이코스

불교와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이곳에서 관계 중심의 ‘오이코스(집, 가정, 가족)’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 쿤폰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이들이 기도 모임에 연결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세밀하심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

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합니다.



3. 기독교여성 리트릿(연합모임)과 소수 민족 사역

다가오는 3월에는 여러 지역의 기독교 여성들이 한데 모여 ‘여성 리트릿’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주민 사역지인 ‘라농 임마누엘 카렌교회’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더와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4. 사역의 동역자

현지 동역자인 ‘쿤랭’과 ‘쿤맹’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과 ‘홀’ 같은 영

적 동역자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말씀을 전하는 ‘시엔’ 목회자와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귀한 태국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동역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도심 속 청년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여 훗날 고향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5. 태국정세와 사회적 이슈

최근 총선을 통해 라농 출신 아내를 둔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품자이타이당이 다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라농 지역의 발전과 영적 기틀이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한편 태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를 통한 사랑과 배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24)



한진구 목사

몇 해 전, 여름휴가 중에 타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시설도 구경할 마음으로 예배 시작 20분 전에 교회에 갔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차 공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다른 교회에 가니, 나에게 묻는다. “처음 오셨나요?” “처음 왔다”라고 하니, 무전기로 “처음 오신 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었던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다.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처음 온 사람을 배려하는가?”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영은교회의 주차 시설을 알아보았다. 우리 영은교회의 주일 주차 공간은 총 세 곳이다. 첫 번째 공간은 영은교회 건물 안 주차장이다. 총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시간제한이 없다. 두 번째 공간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차 빌딩이다. 주일 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공간은 우림 e-BIZ센터이며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교회 주차장 이외에도 두 곳이나 주차 공간이 있기에,

첫 번째 질문인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처음 온 사람도 불편함이 주차할 수 있는가?”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20명 남짓한 주차 안내 봉사자가 건물별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아이와 함께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3부나 4부 예배 때, 교회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이미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교통약자’라고 해도 교회 안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다. 걷는 데 불편함이 없는 성도나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성도라면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차나 우림 e-BIZ센터에 주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통약자가 교회 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더 편안히 드리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도로서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권리이다. 하지만 이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마음 돌봄: 나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나영 집사(상담사)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달하던 친구였기에 더욱 놀라웠고, 상담사로서 미처 살피지 못한 미안함에 곧바로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했던 ‘마음 돌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현대인의 마음 풍경: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마주하다

‘봄을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와 달리 마음은 오히려 가리앉는 경향,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봄철 일조량과 기온 변화는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려 우울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에 스트레스와 불안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더욱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낙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 돌봄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지친 모습만 남아 있지는 않나요? ‘나’를 위해 쓸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칠 때 쉬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충전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교회, 카페, 차안 등 어디든 좋습니다. 쉬이 필요할 때 그 장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 거창한 목표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애쓰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 요리, 책상 정리처럼 소소한 성공 경험은 지쳐 있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세요

나에게 '수고했어.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세요.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수고했다고 마음껏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일상 속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용기가, 오늘 하루와 다가올 내일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어떤 선물을 하시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누군가의 존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사업 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문상담센터 연계 심리상담 8회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100-70%)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족센터(자치구별)	☎ 1577-9337	개인·가족 상담 6-10회기(무료) 전화, 온라인 신청
근로자EPA상담	☎ 02-2674-0329	상시 근로자수 300 미만 기업 근로자 연간 7회기(무료) 근로복지넷 신청
서울 어르신 상담센터	☎ 02-723-9988	65세 이상(무료) 전화, 온라인 신청
청소년의 전화	☎ 1388(24시간)	9-24세 청소년, 부모 등(무료) 전화, 온라인 신청
자살예방 상담	☎ 109(24시간)	전화, 온라인 상담(무료)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1336(24시간)	도박문제상담(무료) 전화, 온라인 신청
스마트쉼 센터	☎ 1599-0075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무료)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영은교회 상담실: 매월 셋째 주일 12:00~14:00 (2층 의료상담실)

2026 부흥사경회 5월 20일(수)-22일(금) | 3층분당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간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강사: 박영호 목사 (포항제일교회 담임)

20일(수) 저녁 7:30 **중심**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삼상16:1-12)

21일(목) 새벽 5:30 **돌봄** 새벽 세시의 하나님(시121:1-8)

저녁 7:30 **공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4:1-14)

22일(금) 새벽 5:30 **기도** 솔직한 기도 성숙한 기도(눅 22:39-46)

저녁 7:30 **희망**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룻 4:13-17)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 목사 | 허남기

담임 목사 | 이승구

부 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동 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분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일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일직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오후 3:00	7층 친교1실
	젊은부부 어울림 1부	오후 12:10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오후 3:00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5개월-3세	오전 11:00	
유아부	4-5세		
유치부	6-7세		
유년부	초등 1-2학년	오전 11:00	
초등부	초등 3-4학년		
소년부	초등 5-6학년		
꿈자람부	4-13세	오후 1:30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3층 비전홀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	